Seven signs – Sermon 9: Sermon notes
Title: "Who is Jesus?"
Conclusion: What does all this tell us?
Scripture: John 2:23,7:31, 20:30-31
Date preached: August 7th 2022

Scripture: John 2:23,7:31, 20:30-31
23 Now when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during the feast, many believed in His name when they saw the signs which He did. **31 And many of the people believed in Him, and said, "When the Christ comes, will He do more signs than these which this *Man* has done?"** **30 And truly Jesus did many other signs in the presence of His disciples, which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31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23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31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행하신 것만큼 많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겠는가?" 30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31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Introduction
Today we will bring our study of Jesus' seven signs to a close. I hope that even though these stories are very familiar to most believers that I have given you something new, or thought provoking to think about. It can sometimes be the case that when we come to a very familiar part of the bible that we read it without fully engaging our thinking capacity. That we read it on auto-pilot. So it's always good to go back and read and re-read the well known or familiar parts of the bible.

Today I intend to do three things with my time. Firstly we will review the seventh sign. Secondly I will briefly review all the signs and highlight what they tell us. Thirdly and finally I will ask you to think about what the signs prove. Let us begin by reviewing Jesus amazing seventh sign.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일곱 표적에 대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매우 친숙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주었거나 생각하게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의 매우 친숙한 부분에 이르면 우리의 사고력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잘 알려진 부분이나 친숙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읽고 또 다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내서 3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곱 번째 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모든 징후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에게 그 징조들이 증명하는 바를 생각해 보라고 요청할 것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일곱 번째 표적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Review
There is an idiom used in show business which goes, "Always leave them wanting more." It means

that an artist, musician or performer should always stop at a point when their audience has not been fully satisfied. This ensures they can sell more tickets in the future.
People will want to come again to see them perform. Of course our Lord and saviour was not interested in providing a spectacle or entertaining people. He was never "putting on a show." But if He were, what sign could He show to give the people any more. What sign could top the raising of Lazarus. This is not to diminish in any way the other signs. They are all amazing and can only be explained by invoking the supernatural. But we all recognise that the raising of Lazarus from the dead after four days is something extraordinary. It is the ultimate proof for who Jesus really is. Let us recap what happened.
Following the increased hostility towards Jesus by the Jewish authorities Jesus had left Judea and crossed the Jordan into Perea. It is whilst here that He receives news from his friends in Bethany. The news is not good, his dear friend Lazarus is very sick. Lazarus is the brother of Martha and Mary. They are well known to gospel readers as they appear in all the gospels. However this is the first mention of Lazarus. The family it seems had a very close and loving relationship with the Lord Jesus. We might therefore expect that upon hearing the news Jesus would hurry to comfort this beloved family. This is not what He chose to do. Instead He stayed where He was for two further days. Jesus you see had determined that He would use the raising from the dead of Lazarus to manifest God's glory.

When Jesus and the disciples arrive in Bethany Lazarus has been dead for four days. He has been laid in a cave tomb and many mourners are there lamenting his loss. Martha hears that Jesus is approaching and she hurries out to meet Him. She tells Jesus that she knows her brother would have lived if He had been there. But she adds, showing her great faith she still believes that God will do what Jesus asks. Jesus tells her that her brother will rise again. Martha here quite reasonably misunderstands Jesus and thinks He is referring to the end time resurrection. Jesus tells her that He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s God He has complete power over life and death. Therefore if He wants to restore life to Lazarus it is fully within His means. Martha then boldly assets that she knows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 one they had all been waiting for.

Martha then returns and tells Mary to go and see Jesus. Mary as I said last week had a different temperament to her sister. She is much more emotional and expressive. When she sees our Lord she falls at His feet. She repeats what her sister said. If only Jesus had been there Lazarus would not have died. It is at this point that John lays bare for us Jesus' real humanity. He was deeply troubled by the sadness and grief of those around Him. Our Lord wept not only because death had taken His friend Lazarus, but also because this once beautiful and perfect world is now home to sin, chaos and death. At this point he asks to be taken to the tomb site. This was a either a natural or a man made cave. A large stone was rolled across the entranceway and acted as a door.

At the tomb site Jesus requests that the stone be moved aside. Martha reminds Him that after four days decomposition will have started. Lazarus's body will be smelling badly. Jesus knows exactly what He is doing and the stone is moved aside. Then with all the onlookers staring intently Jesus in a loud voice calls for Lazarus to come out. No doubt to everyone's amazement Lazarus shuffles out still bound in his linen burial clothes. Lazarus had through God's mighty power been raised from the dead and restored to life.

As I said last time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Jesus and Lazarus. Both came back from the dead. However the differences are significant.
Lazarus was only temporarily restored. That is why technically we should really say that he was resuscitated. We use this word to describe when a doctor or paramedic brings a person back from the dead. Lazarus you see returned to his old body. Whatever weaknesses or ailments he had were

still present. At some point in the future he would again die and be buried in a tomb.

What happened to the Lord Jesus was very different. When the Lord Jesus returned He came back resurrected. He returned in a new and improved eternal body. He came back in the kind of body that we too will one day occupy. What a wonderful and comforting thought that is. As we see ourselves or those we love ageing and becoming weak and sick we can sometimes feel sad and despondent. At such times we should remember that one day we will be fully restored.

Let us begin by briefly reviewing all seven signs.

쇼 비즈니스에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놔두세요"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 음악가 또는 연주자가 청중이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항상 멈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더 많은 티켓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다시 오고 싶어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과 구세주는 구경거리를 제공하거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랬다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표징이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징후를 어떤 식으로든 감소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놀랍고 초자연적 현상을 불러일으켜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놀라운 일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약해 봅시다. 유대 당국이 예수를 적대시하자 예수는 유대를 떠나 요단을 건너 페레아로 들어갔다. 여기에서 그는 베다니에 있는 그의 친구들로부터 소식을 받습니다. 그 소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매우 아팠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입니다. 그들은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사로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그 가족은 주 예수님과 매우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소식을 듣자 서둘러 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는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당신이 보는 예수는 나사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굴 무덤에 묻혔고 많은 애도자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그분을 맞으러 갑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면 그녀의 형이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큰 믿음을 보여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꽤 합리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그가 마지막 때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한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사로의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르다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 그러자 마르다가 돌아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고 합니다. 지난 주에 내가 말했듯이 Mary 는 그녀의 여동생과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감정적이고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그녀는 우리 주님을 볼 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녀는 언니가 한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진정한 인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슬픔에 깊이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이 그의 친구 나사로를 데려갔기 때문에 우셨을 뿐만 아니라 한때 아름답고 완벽했던 이 세상이 이제 죄와 혼돈과 죽음의 고향이 되었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무덤 사이트로 데려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자연 동굴이거나 인공 동굴이었습니다. 입구를 가로질러 큰 돌을 굴려 문 역할을 했다. 무덤에서 예수님은 돌을 치워 달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나흘 후에 부패가 시작될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나사로의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돌은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나사로는 아마포 장례복을 입은 채 몸을 웅크리고 나섰습

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둘 다 죽음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차이점은 중요합니다. 나사로는 일시적으로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는 그가 소생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의사나 구급대원이 죽은 사람을 다시 데려올 때를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당신이 보는 나사로는 예전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진 약점이나 질병이 무엇이든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는 다시 죽어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달랐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는 부활하여 다시 오셨습니다. 그는 새롭고 개선된 영원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도 언젠가는 차지하게 될 그런 몸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안이 되는 생각입니까.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늙어가고 약해지고 병들어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때때로 슬프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젠가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가지 징후 모두를 간략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The signs in John's gospel

As I have said on several occasions John's gospel is unique. Obviously it's focus;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same as the synoptics, but John's approach is different. Matthew, Mark and Luke want to tell us what Jesus said and did. John by contrast wants us to look beyond what Jesus said and did to think about who Jesus is. This is why John's gospel still challenges people today. You cannot read it and remain neutral on the issue of Jesus. You must make a choice. Either Jesus is who He claimed to be; the Messiah. Or else He was not, and then you must explain away all the evidence John gives you.

John spends the first part of his gospel, chapters 1 to 11 outlining Jesus public ministry. He then devotes chapters 12 to 20 to Jesus' passion week. He closes his gospel describing Jesus meeting the disciples on the beach and reinstating Peter. You will note that all of the signs take place in the first eleven chapters. Let us remind ourselves of what they were and what they teach us.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분명히 초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공관복음과 동일하지만 요한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대조적으로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읽을 수 없으며 예수 문제에 대해 중립을 유지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가 주장한 사람이거나; 메시아.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아니시므로 요한이 당신에게 제시한 모든 증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요한은 복음의 첫 부분인 1 장에서 11 장까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개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12 장에서 20 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할애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을 묘사하는 그의 복음을 끝맺습니다. 모든 표시가 처음 11 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상기해 봅시다.

The first sign.

The turning of water into wine took place in the small town of Cana in Galilee. The wedding disaster (running out of wine) was averted when the Lord Jesus instantly turned the six ceremonial purification pots of water into wine. What was this sign intended to show? Christians are often puzzled by this sign. But the reality is really very simple. It signifies that Jesus is replacing the old system with something new. The water pots symbolised the old covenant system. A way to God that came through ritual, law and sacrifice. This system had run its course. It's time was now over. It was being replaced by something new and better. The messiah was here to change the empty and tired way of human religion into a living, joyful relationship with God.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인의 재앙(포도주 부족)은 주 예수께서

여섯 가지 정결케 하는 물 항아리를 즉시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시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 표시에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말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낡은 제도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동이는 옛 언약 제도를 상징했습니다. 의식과 율법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시스템은 그 과정을 실행했습니다.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 □□ 것으로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인간 종교의 공허하고 지친 길을 하나님과의 살아 있고 즐거운 관계로 바꾸기 위해 여기에 있었습니다.

The second sign.
The healing of the officials son again took place in Cana but had effect in Capernaum several miles away. The royal official came seeking the Lord because his son was dying. Jesus was his last hope. He believed that if Jesus came his son would live. Jesus told him that he would not come but that his son would live. The official took Jesus at his word. He had faith that what Jesus said would happen. On the way home he is met by his servants who tell him his son is fully recovered.

This sign reminds us that God is not bound by time and space as we are. Even though He is not physically present with us now the Lord Jesus can and does act in the world around us. The sign also gives us a good model for how we are to respond to Jesus. The man heard and then believed, or had faith in Jesus. He did not require additional evidence or proof. That kind of faith is what God desires from us.
It's not blind faith, believing without having good evidence or reason. But a faith based upon what we know about God and because we know He always keeps His word.

관리 아들의 치유는 다시 가나에서 일어났지만 몇 마일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주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아들이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지 않고 그의 아들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들을 만나니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표시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비록 그분이 지금 우리와 물리적으로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주 예수님은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행동하실 수 있고 행동하십니다. 이 표징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 사람은 듣고 예수를 믿었거나 믿었습니다. 그는 추가 증거나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좋은 증거나 이유 없이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그분이 항상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The third sign.
The healing of the man at the pool of Bethesda. In Jerusalem there was a pool that many believed provided healing. It was a place in which many sick people gathered in the hope of being healed. For many years a paralysed man had gone to the pool hoping that when the waters were stirred he might be first in and be healed. However his lack of mobility meant that he could never get into the water quickly enough. When Jesus met the man He simply told him to get up and pick up his mat. After 38 years he stood up and walked. The sign reminds us that God works on His own timetable. God does not always work when we want Him to. It also teaches us that God is not obliged to heal all people. There were many sick people at the pool but Jesus signalled out just one. We cannot know God's ways we must just accept that He always does what is best in every situation. It also teaches us something about our need for a saviour. The man's sickness prevented him from being able to get into the pool to be healed. By his own works or efforts he was never able to save himself. Our sin keeps us from being able to save ourselves. Our good works or deeds are never enough. God's standards are absolute perfection. One million good acts are offset by one "tiny" sin.

So just like the paralysed man we also need a saviour.

베데스다 못에서 사람을 고치심.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제공한다고 믿었던 못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중풍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못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동성 부족으로 인해 그는 결코 충분히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저 일어나 자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 년 후 그는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항상 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치료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못에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으며 그분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은 병이 들어 고침을 받기 위해 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일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행위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 완전성입니다. 백만 개의 선행은 "작은" 죄 하나에 의해 상쇄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The fourth sign.

Feeding the 5000. This sign took place on the far shore of the Sea of Galilee. It is the only sign that is recorded in all four gospels. A large crowd had followed Jesus. As the day wore on Jesus questioned His disciples as to how so many people could be fed. They tell Him that it would require a huge sum of money even if a bakery could be found that could bake enough bread. Andrew brings him a boy with five small barley loaves and two fish. Surely this paltry offering would not be enough for all these people. After thanking God Jesus distributes the bread and fish and everyone has as much as they desire. At the end there are 12 baskets full of leftovers. This amazing sign reminds us that it is God who provides all that we have. We so often take for granted the things that we have,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and be thankful for God's countless blessings. On a deeper level this sign tells us that it is only through seeking God's kingdom then all our needs will be met. Naturally we look beyond just the physical needs we have. We think also of the spiritual emptiness we all feel inside. I once heard it described as a God shaped hole that all of us have inside. People try to fill that hole with the things of this world. Money, power, sex, drugs, alcohol and material things. None of them are adequate. We can only truly be satisfied and filled by a re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5000 명을 먹이심. 이 표징은 갈릴리 바다 먼 기슭에서 일어났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표적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얼마 많은사람을 먹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빵을 충분히 구울 수 있는 빵집을 구한다 해도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앤드류는 작은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소년을 데려옵니다. 확실히 이 보잘것없는 제물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갖게 됩니다. 결국 남은 음식으로 가득 찬 12 바구니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표징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이 표징은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구함으로써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필요 이상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모두가 내면에서 느끼는 영적인 공허함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내면에 있는 신 모양의 구멍으로 묘사 되는 것을 한 번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멍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 권력, 섹스, 마약, 술, 물질. 어느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습니다.

The fifth sign.
Jesus walking on the water. Jesus had gone up into the mountains alone. The disciples had decided to go on without Him across the Sea of Galilee to Capernaum. It was night and as they rowed a terrible storm hit the sea of Galilee. Despite their best efforts the disciples made little progress. Then they see a figure walking across the water. Initially they are fearful. But as the figure approaches the boat He tells them it is Jesus. They willingly take Him into the boat and then find themselves immediately at their destination. In walking on the water Jesus showed that He had complete mastery over the natural elements. Something only God can claim. It also teaches us a spiritual lesson about our dependency on Jesus. Without Him we will always be floundering. Fighting against the darkness and making little progress. With Him we are safe and the struggle is over.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그들이 노를 저어 갈 때 무서운 폭풍이 갈릴리 바다를 덮쳤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 위를 걸어가는 한 인물을 봅니다. 처음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형상이 배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분을 배에 태우고 즉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연적인 요소를 완전히 지배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신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허둥지둥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과 싸우고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안전하고 투쟁은 끝났습니다.

The sixth sign.
The healing of the man born blind. Jesus was in Jerusalem most likely in or around the temple. Whilst here he encounters a man who had been blind from birth. The disciples are interested as to the cause of the man's blindness. Was it him or his parents who had sinned. Jesus tells them that the blindness was not the result of sin.
Rather it happened so that God's glory might be displayed. Jesus spits onto the ground and makes some mud. He then rubs the mud over the man's eyes and tells him to go and wash in the Pool of Siloam. After washing the man can see perfectly. This miracle reminds us that nothing is beyond the power of God. He can, if He chooses bring instant and miraculous healing when He wills. People who have suffered for many years can take comfort in the fact that God has not forgotten their suffering. On a deeper level it tells us something about spiritual blindness. Without God's intervention in our lives we would all be living in spiritual darkness. Because God in His grace touched our eyes and opened our hearts now we can see. Now we live in His light.

태 날사어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치유 . 예수님은 아마도 성전 안이나 주변에 예루살렘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남자를 만난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실명한 원인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였습니까? 예수님은 소경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남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세탁 후 남자는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분은 선택하신다면 그분이 원하실 때 즉각적이고 기적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맹목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빛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The seventh sign.

The raising of Lazarus from the dead. After being dead for four days Jesus raised Lazarus and restored life to him. It is the greatest and most significant of the signs because for human beings death is our ultimate enemy. We can suffer on through hunger, disability and blindness. But when death appears it is all over. Human beings have developed many amazing techniques to conquer sickness and disease. Laser surgery for example can restore sight to people who are vision impaired. But no one yet has figured out a way to bring a four day old corpse back to life. Only God has that power. This miracle reminds us of this fact. It also serves as a model for what all believers experience. When we encounter Christ and respond in faith to Him He calls us out from death and gives us eternal life.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살리셨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궁극적인 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우리는 굶주림, 장애 및 실명을 통해 계속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인간은 질병과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수술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4 일 된 시체를 되살릴 방법은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이 사상 실을 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의 모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불러내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u>What the signs prove</u>

Let us bring this series of sermons to a close by thinking about what the signs prove. As I said in my introduction to this series John was very selective in the material he included in his gospel. Jesus performed many signs and miracles but John only tells us about seven. Why these particular signs? Well, guided by the Holy Spirit John chose the seven signs because of what they pointed to. They are intended to direct us to a much greater truth that lies beyond themselves. John himself tells us that these signs are selected for their ability to help us recognise the truth about Jesus. This is how John concludes his gospel.

표적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생각하면서 이 일련의 설교를 마치도록 합시다. 이 시리즈의 서문에서 말했듯이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포함된 자료에 대해 매우 선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일곱 가지만 알려 줍니다. 왜 이러한 특정 징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곱 표적을 택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그들 자신 너머에 있는 훨씬 더 큰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 자신은 이 표적들이 우리가 예수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복음을 끝맺습니다.

30 And truly Jesus did many other signs in the presence of His disciples, which are not written in this book; 31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30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31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This then is where the signs point. Every sign points towards Jesus. Every signs forces us to ask one simple question. Who is Jesus?

I want you to think for a moment about a police investigation. Imagine that a crime has occurred and police are investigating. Let us say a burglary has been committed. Perhaps the police have a suspect in mind. However before he or she can be charged the police need to collect evidence. Evidence comes in two forms. The first kind of evidence is known as direct evidence. This includes eyewitness testimony, or someone hearing what took place. So perhaps someone saw the thief

breaking a window.

The other form of evidence is known as indirect evidence or circumstantial evidence. This includes fingerprints, bloodstains or other forensic evidence that leads an investigator to think a certain act took place. In this case maybe the thief left a fingerprint on the door handle.

Now the Apostle John was a direct eyewitness of the things he records in his gospel. His whole purpose in setting things down was to provide the necessary evidence that people needed to believe that Jesus Christ was the Messiah, the Son of God, the one sent to save lost sinners. This is what John says.

여기가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입니다. 모든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징후는 우리에게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경찰 조사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범죄가 발생했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도가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찰이 염두에 두고 있는 용의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기소되기 전에 경찰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증거를 직접 증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목격자 증언이나 일어난 일을 듣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도둑이 창문을 깨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증거는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문, 혈흔 또는 수사관이 특정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기타 법의학 증거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도둑이 문 손잡이에 지문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된 것들의 직접적인 목격자였습니다. 상황을 설정한 그의 모든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분임을 믿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23 Now when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during the feast, many believed in His name when they saw the signs which He did.

31 And many of the people believed in Him, and said, "When the Christ comes, will He do more signs than these which this *Man* has done?"

23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31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행하신 것만 큼 많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겠는가?"

Now what is interesting is that many but not all the people believed. It's hard to imagine what further evidence you would need. Everyone knew that Lazarus was dead. He had been buried for four days. Jesus came and called to him, now he was alive and well. What explanation can explain these facts. What human being has this kind of power over life and death. The truth then is that the Jews in Jesus day did not come to faith due to a lack of evidence. There was a mountain of evidence. They simply did not want to believe. Their hearts remained cold and indifferent to the truth right in front of their eyes.

So now we come to you. Where do you stand? Where do the signs point you? John's gospel does not allow for sitting on the fence. You must go one of two ways.

Either you are you not persuaded that the signs were genuine and that Jesus was not who He claimed to be. Or else you rightly recognise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 Son of God and the one sent to save lost sinners. The signs point to an obvious conclusion. Jesus was who He claimed to be. God in the flesh. I hope and pray that you have faith in the signs John gives us. Because it is only by believing and putting your faith in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that you receive the gift of eternal life.

이제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지 상 상하기 어렵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 일 동안 묻혔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그를 부르시니 그가 이제 살아서 나왔더라. 어떤 설명이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삶과 죽음에 대해 이런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증거가 없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증거의 산이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눈앞의 진실에 무관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표지판이 당신을 가리키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은 담장에 앉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 표적이 진짜였으며 예수는 그가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후는 명백한 결론을 나타냅니다. 예수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신.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